



## 서른한번째 이야기

### 땅끝에서 만난 사람들

예년보다 많이 어수선한 올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떠나보내고 계신지요.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고, 올해 있었던 자신의 탑텐 이벤트를 손꼽아 보셨나요? 저는 제 인생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통해 매년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2016년 일기장을 펼쳐보다 보니, 올해 2월 캄보디아 바탐방이란 곳에서 만난 이정호 태화사회복지재단 센터장님이 먼저 생각납니다.

자신을 이곳에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재단 리더십으로부터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자리라며 마다하다 기도해보겠다 했던 그. 바로 다음 날 첫 새벽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어느 날 주인이 양동이 두개를 들고 우물가로 물을 뜨러 갑니다. 그 중 하나는 멀쩡한 양동이이고, 다른 하나는 깨진 양동이입니다. 물을 아무리 퍼나르든 깨진 양동이에서는 물이 줄줄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진 양동이가 보다 못해 스스로 주인께 호소했답니다.



“주인님, 저 같은 깨진 양동이는 이제 버리시고, 제대로 된 것으로 바꾸시죠. 물이 다 썩니다요~”주인께서 곧바로 그 깨진 양동이를 들고 길 밖으로 나오셨답니다. **“저 길 양편에 피어있는 꽃들이 보이느냐, 그 꽃들이 다 너로 인해 물을 공급 받은 생명체란다 너는 흘렀다고 여겼지만, 나는 그곳으로 흘러 보내려고 너를 사용한 거란다.”** 퍼온 물은 퍼온 물 대로, 흘러보낸 물은 흘러 보내신 물 대로, 그 역할을 맡기고 사용하시는 주인에게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바로 다음날 재단 리더십에 수락의 메일을 보냈답니다. ‘깨진 양동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사용해 달라고.’ 그는 역대 최고로 서툰 캄보디아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역대 최고의 신망을 얻고 있다 합니다. 만국 공통어인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현지 주민 및 직원들과 최고의 소통 공간을 일구어 낸 겁니다. 하긴 슬픈 일을 당한 현지인 얘기를 들으면 그들 보다 먼저 눈가에 물이 차오르는 그 ‘깨진 양동이’를 통해 현지인들이 위로와 힐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현지인 직원의 귀뜸이었습니다.



그 뜨겁던 올 여름, 더 뜨거운 그리스로 아웃리치 떠났던 7월도 많이 기억납니다.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신전과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작년 가을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 사건 이후로 그리스는 아랍권 난민들이 유럽을 향한 첫 경유지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16년째 난민선교를 하고 계신 양용태 김미영 선교사님 부부는 **“아랍권 선교사님들의 소망은 그들**

**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자기 발로 찾아온 이슬람 아랍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슬람이었던 아랍인들과 함께 손을 들어 찬양도 부릅니다. 그것도 남녀가 함께요.”라면서 “그저 밥 한끼 먹이고 딱 복음만 선포했을 뿐인데도 수년 후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찾아와 내 영혼이 거둬난 고향이라고 소개하며, 추억의 닭고기 숲 한 그릇을 비우고 갔던 아프간 청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브렉시트니 뭐니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닫고 있는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이 당신 나라의 국경을 넓히고 계시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흡사 미디어라는 가짜 선지자가 큰 소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데, 두 분 선교사님만이 주님의 속삭이는 신호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벌써 두달 전 방문했던 니카라과 산디뇨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뵈신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51세의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어학 코스를 밟는 중에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로부터 미안하지만 후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멕시코에 예정되었던 사역지마저 그곳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바꾸시는 통에 사라집니



다. 급기야, 이유불명의 통증으로 시름시름 앓던 아내는 뜻밖에도 고산병으로 밝혀져, 해발 0 미터 지역으로 무작정 사역지를 정하고 출발해야 해서 이른 곳이 바로 이곳 니카라과. 아내 오경자 선교사님은 “그래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십니다. “이른바 버스사역이라는 걸 했어요. 버스를 타고, 초보 스페인어로 준비한 8분짜리 사영리를 쪽 읽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많으면 하루 20대 정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간혹 몇분씩 버스에서 따라 내리시며 복음을 더 듣고 싶다 하시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내린 지금 마을에서 정말 못살아도 너무 못사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곤,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죠.” 그들이 사비를 들여 구입한 곳은 사실상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처음 학교 건축 공사를 위해 그 땅을 뒤엎을때 나온 동물시체와 온갖 오물들은 말 그대로 끔찍한 장관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후 6년.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환갑이신 정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에덴센터는 그 동네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로 명성을 얻어 초등교육에 이어 중등교육 까지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니카라과 하면 BEE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며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후훗. 예, 압니다. 한숙영 권사님 덕분에 ‘그분들’도 뵈고 왔습니다. 정진모-정혜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저는 ‘돕는 사역’이 어



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느꼈습니다. 두분 모두 언어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라, 통역을 기본적으로 맡아주시는데, 중남미 파라과이 이민자 출신인 정혜진 선교사님은 자타공인 최고의 스페인어 통역 선교사 다우시더라고요~. 정진모 선교사님은 아마도 ‘중남미 선교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려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겸손한 서번트십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먹으시는데...

정말이지, 빗장을 아무리 거세게 걸어 잠근 마음이라도 이 두 분 앞에서는 수 분 안에 무장해제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 ‘엘리아’의 그 은은한 커피향으로 후각 공세를 펴신 후, 중남미에선 쉽게 구하기 힘들 것 같은 초밥으로 미각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후 두 훈남 훈녀가 맛있게 드시라는 뜻에서 특유의 기분 좋은 미소 공세까지 펼치게 되면 거기서 경기 끝, (두 분의) 불계승이 뻔합니다. 후훗. 이 자리를 빌어 두 분 선교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을 통하여 니카라과 전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또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역자들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고 떠나오는지, 아마 두 분은 모르실거예요..^^

땅끝에서 만난 다양한 사역자 및 선교사님들을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후원은 의지할 수 없다. 언제 끊길 지 모르니까. 둘째, 돈은 도둑 맞아도 마음은 도둑 맞지 말아야 한다.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이유나 삶의 동력은 없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중뿔나게 무슨 권력을 누리는 것도 아닌 그분들은 상황과 경력이 모두 달랐지만,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오직 그 분’ 덕분에 이렇게 있다. 연말이라고 대충 훈훈하고 훌리하게 마무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 세끼먹고 사람 만나고 하는 면에서 그 분들의 일상과 저와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그들과 저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싶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 분들의 험블한 모습에서 애굽의 풍요에 찢어 종살이 하는 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버랩 됐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요한복음 3장 30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글-사진 최승호, 편집 이경주)

---

## BEE 소식

---

- 예나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 잘 받고 퇴원했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되도록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 가나에서 사역하시는 강혜경선교사님 건강 문제로 온 가족이 귀국하셨습니다. 28일 수술 잘 되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가족 모두가 성경통독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올 한해도 여러 모양으로 동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사랑받는 "비오는 수요일" 되겠습니다.